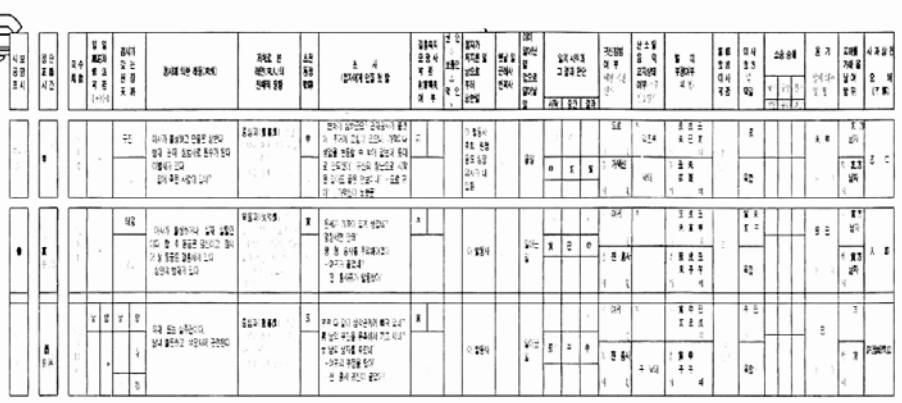
「육임래정비법 혁신판」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비싼가?

오행을 모르는 분을 위해 오행에 능통한 분을 위해 또, 간판을 자신있게 걸고자 하는 분을 위해, 큰 맘 먹고 다시 습니다. -효사-

육임 신단(神斷)은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시간만 보아 미리 그 사람의 사정과 특별한 비밀과 일의 결과를 내가 먼저 말해 주는 책이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그 날치 한 장에 다 적혀 있어 쓰여진대로 보고 말씀만 하면 그 사람은 자세와 안색이 달라지게 되어있는 책입니다.

이를테면, 낮 사(巳)시(9:32~11:32 서울지역기준)에 사람이 왔거나 전화했거나 가서 만났을 때, 이 사(巳)시 칸에 써져 있는 내용들을 보고 말하면 다 맞게 되어 있는데, 아래의 내용들을 모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이 사람의 운세가 지금 순조로운지 역경스러운지를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2, 천도·시식·굿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즉 굿을 해야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가 +표, 또는 −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물으러 왔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4,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5, 문에 들어서자 말자, 전화 오자말자, 가서 만나자 말자 대뜸 내쏠 말이 적혀 있으며, 동시에 어떤 귀신이 발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끔 쓰여 있습니다.

6, 무엇을 묻든, 그 묻는 일이 될것인지 안될 것인지, 즉시 알고 말해줄수 있도록 써져 있습니다.

7, 상대가 이익을 줄 사람인지, 피해를 줄 사람인지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한 사람인지가 즉시 판단되고, 또 말해 줄수 있게끔 표시해 놨습니다.

8, 상대가 선한지, 악한지를 표시해 놨습니다.

9, 찾아오거나, 전화를 했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고민사가 자기 스스로 일으킨 일인지, 아니면 남으로부터 당한 일인지가 써져 있습니다.

10, 묻는 용건이 오래된 일인지, 근래에 일어난 일인지, 자주 반복되는 일인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1, 그 일이 이미 일어났는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가 써져 있어 먼저 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2,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일을 시작·중간·결과로 나뉘어져 좋고 나쁜 것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표시대로만 말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13,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에 대해 그 시간만 보면 지금 그 사람에게 무슨 귀신이 침범하여 발동하고 있는지를 즉시 말할 수 있도록 그 시간 칸에 다 써놨고, 그 귀신을 제압시킬 수 있는 방법을 부록에 자세히 밝혀 놨습니다.
귀신을 밝히면 반드시 그 집안에 그런 귀신이 있다는 것을 시인받게 되는데, 이를테면 「전사귀가 발동했네?」라고 들어서는 사람에게 즉시 먼저 말하면 그 집안에 전쟁터에 나가 운명한 분이 있다는 것을 수긍하게 됩니다. 이것은 육임에서만 밝힐 수 있는 비법으로서 천도나 시식, 또는 굿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14, 지금 누구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를 먼저 지적할 수 있도록 탈 부리고 있는 산소를 써놨습니다. 생년월일시를 물어서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문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전화 받자마자, 찾아가서 마주치자마자 먼저 내쏴부칠 수 있도록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산소탈에 대한 제압법도 부록에 밝혀 놓았습니다.

15, 빌미부정 역시 온 사람이나 전화한 사람의 띠만 알면, 상대가 현재 무슨 부정이 들었는지, 빌미부정든 띠들을 모두 써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는 단번에 기선을 제압당해 버립니다.

16,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흉상인지 길상인지, 이사를 하면 좋을 것인지, 빨리 그 집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 사람인지 여부가 써져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부록 해당 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주치는 그 순간 먼저 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7, 이사를 하려할 때 어디로 이사를, 어느 날에 시키면, 언제 어느 해, 또는 어느 월에 가서 좋은 일이 있게 되는지를 아예 써놨습니다.

18, 국가와 개인간의 소송, 집안 수상·수하간의 소송, 타인간의 원고·피고의 소송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분명히 표시해 놓았습니다.

19, 묻는 일이 어느 월에 될지, 어느 날에 될지를 정확히 써놨습니다. 또 부록에 그 근거를 밝혔으니 이를 보시면 참으로 큰 것이 얻어 집니다.

20, 어디 방위에 사는 남녀 누가 피해를 가해 올 사람인지를 밝혀 놓았습니다.

21, 뒷면에, 묻는 용건을 즉시 답변해 줄수 있도록 묻는 내용 22가지별로 그 답을 써놨습니다.

22, 뒷면에, 그 사람 띠만 알면 그 사람의 운세를 밝힐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귀인인지, 천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비한지사인지, 병들 사람인지, 관재가 있을 사람인지, 등등이 모두 밝혀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날치 한 장 칸칸마다에 다 쓰여져 있으므로 바인더로 된 본 책에서 그 날치 한 장만 빼서 책상위에 놓고 하루 동안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전13권 · 바인더금박 · 크기 : 540×380×30 · 지질 : 스노우무광
주문전화 : (02)993-8680
입금처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 도서출판 복문
※각종 카드로 장기 분할 구입도 가능합니다.

매월별 12권 분권
1,300,000원
(일백삼십만원)

육임1년 신수비결 출시 주문받습니다.
값 250,000원(1,450페이지, 8절 미색모조)
보는 날짜와 시간만 찾으면 그것을 보고 말씀만 하십시오. 적중합니다. 띠별·월별 길흉이 신통하게 적혀 있습니다.